

정부, 산업 AI 인프라 지원 확대 자율실험 등 과제당 100억 투입

산업부, 인프라 구축 과제 공모 중소·중견기업 기술개발 촉진 산업표준 제정 등 성과 창출 유도

산업통상자원부가 자율실험, 휴머노이드 로봇개발, 자율제조 등 산업 인공지능(AI)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위한 대규모 공동활용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과제당 최대 5년간 국비 100억원을 지원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촉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10일 자율실험실, 휴머노이드 로봇, 자율제조 등 산업 AI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위한 공동활용 인프라 구축 과제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산업부가 추진하는 3대 핵심 인프라는 ▲AI 기반 화학공정 및 소재합성 최적화 자율실험실 ▲AI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혁신 센터 ▲제조AI 솔루션 개발 지원센터 구축이다.

먼저 자율실험실은 AI, 로봇, 자동화 기술을 접목해 실험의 기획부터 실험, 분석, 최적화까지 전 주기를 자동화한 실험실을 구축하는 것이다. 대규모 실험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유망 실험 조건을 예측하고, 로봇 및 자동화 장비로 반복 실험을 수행해 결과를 학습하여 AI가 후속 실험을 스스로 설계하도록 한다.

소재·화학 R&D는 실험 의존도가 높고 반복작업이 많아 시간과 인력이 크게 소모되는 분야로, 자율실험 인프라를 통해 국내 기업의 개발 속도와 성공률을 혁신적으로 높이는 것이 목표다.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혁신 센터는 AI 기반 휴머노이드 로봇을 제조현장과 일상생활에 적용하기 위한 실증 환경 구축하고, 휴머노이드 개발 및 활용 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한다. 핵심기술 개발에 필수적인 시뮬레이션 플랫폼 구축과 산업표준 제정 등도 연계 지원해 신속한 사업화 성과 창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제조AI 솔루션 개발 지원센터는 AI 팩토리 등 산업부가 추진하는 제조AI와 연계해 자동차, 전자, 조선, 이차전지 등 주력 제조산업 현장에서 확보한 고품질 데이터와 기술을 기반으로 기업들의 AI 솔루션 개발을 위한 각종 도구들을 지원한다.

산업부는 자율실험실 과제의 경우 난이도가 높고 고도의 AI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일반적인 공동활용 기반구축 사업과 달리 참여기관을 출연연, 대학 등 비영리기관으로 제한하지 않고 영리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

또 AI 기술발전 속도와 산업 수요를 고려해 일반적인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의 과제수행 기간인 5년보다 짧은 기간에 과제를 완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자율실험, 휴머노이드 로봇, 자율제조는 산업부문 AI 대전환의 핵심과제"라며 "차세대 첨단기술 개발과 시장성과 창출을 앞당기기 위해 기존 틀에서 벗어나 현장의 수요에 맞는 유연하고 신속한 투자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조AI 솔루션 개발 지원센터는 AI 팩토리 등 산업부가 추진하는 제조AI와 연계해 자동차, 전자, 조선, 이차전지 등 주력 제조산업 현장에서 확보한 고품질 데이터와 기술을 기반으로 기업들의 AI 솔루션 개발을 위한 각종 도구들을 지원한다.

또 AI 기술발전 속도와 산업 수요를 고려해 일반적인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의 과제수행 기간인 5년보다 짧은 기간에 과제를 완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자율실험, 휴머노이드 로봇, 자율제조는 산업부문 AI 대전환의 핵심과제"라며 "차세대 첨단기술 개발과 시장성과 창출을 앞당기기 위해 기존 틀에서 벗어나 현장의 수요에 맞는 유연하고 신속한 투자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농식품부, '농촌빈집은행' 사업 실시

농촌에 방치된 빈집, 새로운 자산 전환

'농촌빈집 거래 활성화(농촌빈집은행)' 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는 전국 농촌에 방치된 빈집을 새로운 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이다.

농촌빈집은행 사업이란 민간 부동산 플랫폼(한방, 디스코, 네이버부동산 등)과 귀농귀촌종합지원 플랫폼(그린대로)에 빈집을 매물로 등록하는 작업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가 수집한 빈집 정보가 수요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3월부터 참여 지자체 모집, 지자체별 관리기관 및 지역 협력 공인중개사 선정을 추진해 왔다. 현재 18개 지자체를 비롯해 4개 관리기관, 100여 명의 공인중개사가 선정돼 농촌 빈집은행 운영을 준비 중이다.

경기 이천, 충북 충주·제천·옥천, 충남 예산·홍성, 전북 부안, 전남 강진·광양·담양·여수·영암·완도, 경북 예천, 경남 의령·거창·합천, 제주 등이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빈집이 주어, 창업, 여가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동서발전, 국내 최대 BESS 발전소 착공

제주북촌 위치... 11월 완공 예정

한국동서발전이 제주도에 국내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 발전소 건설에 본격 착수했다.

한국동서발전은 지난 9일 오후 제주도 시조천읍 북촌리에서 '제주북촌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 발전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140메가와트시(MWh) 규모의 대용량 배터리를 통해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공급하는 시설이다.

건설공사는 올해 11월 완공될 예정



제주북촌베스발전소 조감도 /동서발전

이때, 준공 후 바로 상업운영에 들어간다. 향후 15년간 제주 지역의 전력공급 안정화와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완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코트라, '무역구조 혁신 TF' 본격 활동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 대응 공급망 안정화 등 4대 전략 제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무역구조 혁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코트라는 10일 강경성 사장 주재로 무역구조 혁신 TF 첫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강 사장이 직접 총괄을 맡은 이번 TF는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 전략적으로 대응해 신정부의 무역투자 공약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됐다.

강경성 사장은 이날 회의에서 집중 추진할 4대 전략과제로 ▲수출 시장·품목 다변화 ▲내수 강소·중견기업 수출



코트라는 10일 '무역구조 혁신 TF'를 발족하고 첫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이 발언하고 있다. /코트라

기업화 ▲환경무역장벽 대응 ▲공급망 안정화를 제시하고, 131개 해외무역관을 비롯한 국내외 조직과 역량을 총결집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수출 시장·품목 다변화 전략에서는 K-컬처, 디지털서비스, 방산, 조

선, AI를 주력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고 글로벌사우스 등 신시장 개척에 집중할 계획이다.

내수 강소·중견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육성해 우리나라가 수출5강으로도 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수출이 내수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구축에도 나선다. 수출기업들이 겪는 물류에 해소를 위한 지원체계 고도화도 추진한다.

환경무역장벽 대응 측면에서는 우리 중소기업이 RE100, ESG 등 새로운 무역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또한 핵심소재 공급망 안정화를 통해 경제안보 역할도 확대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해수부, '대한민국 수산대전' 여름특별전

전북·민물장어 등 계절보양식 포함

해양수산부가 '대한민국 수산대전-여름맞이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 및 수산물 소비를 촉진이 목적이다.

이번 특별전은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다. 전국 마트와 온라인몰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할 때

구매금액의 최대 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할인 품목은 대중성 어종 6종·김 등 주요 물가 관리 품목뿐만 아니라 전북·민물장어 등 더운 계절 보양식으로 즐겨 먹는 수산물도 포함됐다.

또 여름철 고수온이 시작되기 전 양식수산물 조기 출하를 도모하기 위해 광어·명게 등 주요 양식 품목도 할인해 판매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 개막

환경부 13개국 262개 기업 참여

환경부와 한국환경보전원이 국내 최대 규모 환경전시회인 '제46회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이하 엔백스 2025)'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행사는 이달 11~13일 사흘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예정돼 있다. 환경부는 이 전시회를 통해 중소기업의 우수 녹색기술 교류 및 국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엔백스 2025'는 13개국 262개 기업이 참여해 총 626개 전시관(부스) 규모로 열리며 4만5000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전시에

서는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CCU S 멤브레인) ▲에너지 절감형 수처리 기기 ▲대기오염물질 저감 기술 등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유망 녹색기술이 소개된다.

특히, 기술적 완성도와 실용성을 갖춘 중소기업의 제품을 중심으로 산업 현장 적용 가능성이 높은 기술들이 집중적으로 전시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오늘의 날씨

6월 11일 (수) 음력 : 5월 16일

수도권 날씨 16~29°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해돋이 / 05:10 | 해질 / 19:53

연천 13/28, 동두천 14/29, 가평 12/29, 파주 13/28, 서울 16/29, 양평 14/28, 인천 17/25, 수원 16/27, 용인 16/27, 평택 15/28, 백령도 16/23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한발 뺀 미국·역제안 이란... 이주 핵협상 분수령
▲ 멕시코 경찰, 과테말라 국경 넘는 마약조직원 4명 총격 살해



▲ 로스앤젤레스 시위 격화... 미 해병대 투입에도 확산 양상
▲ 이탈리아 '시민권 요건 완화' 국민투표, 투표율 저조로 무산

▲ 크렘린궁 대변인 "도네츠크 서쪽에 완충지대 구축"
▲ 필리핀 상원,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 탄핵절차 개시